

목차

上

—————

2

下

—————

13

S#1. 희승의 차 안 (현대 쌘타페 DM 디젤, 카맥스에서 중고로 \$10,000에 구매한 것), 아침

희승이 두 손에 머리를 받치고 핸들에 기대고 있다. 차창 밖으로 그림자가 진다. 손차양을 만들고 운전석을 들여다보는 종성과 눈이 마주친다.

종성: (차 유리에 가로막혀 멍멍한 목소리) 형?

희승이 창문을 내린다.

희승: 어... 나 왔다.

종성: 미쳤다. 안 힘들었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일주일 걸리나? (운전석 문을 손가락 마디로 두드린다) 문 좀 열어봐요.

희승이 천천히 문을 열고 내린다. 대신 종성이 운전석에 탄다. 빈 티지 스타일 티셔츠에 날개 일러스트와 어지러운 영문이 휘갈겨져 있다.

희승: (조수석에 앉자마자) 거의 논스탑으로. 오클라호마에서 쭉.

종성: 체력 미치셨네요 형. 뭐 좀 먹었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에 초록색 빨대를 꽂는다) 마실래요?

희승: 아니.. 하도 마셨더니 심장떨려..

종성: (안전벨트를 칙 당기며) 뭐 커피를 얼마나 마신거예요 1톤 막 이렇게 마셨어요?

브이넥에 걸어둔 선글라스를 요란하게 펼치는 종성이다. 머리를 양손으로 쓸어넘기고 선글라스를 낀다. 희승이 웃는다.

희승: 여전하구나 너...

종성: 여전하죠 그럼. 사람이 어디 갑니까.. (몸을 비틀어 캐리어가 펼쳐진 뒷자석을 살피고 운전석 위에 달린 간이짐칸을 딸까 연다) 쓸만한데요 차?

희승: 쌩쌩해.

희승: (뜸들이다) 뭐하고 지냈니?

종성: 잠깐 쉬고 있어요.

희승: 놀고 먹고?

종성: (웃음을 터뜨리며) 네해. ㅋㅋㅋ 형은 살만해요?

희승: 나야 뭐 늘 죽고싶지.

종성: 아 무슨소리예요 그게..

희승: 여기서 얼마나 걸린다고?

종성: 한 10분? 샌디애고는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말이죠. 그도 그렇게 온~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퇴하고 다 여기 모여서 사니까

종성이 어렵지 않게 시동버튼을 찾아 누른다. 운전석 창문에 보기 좋게 팔을 걸치고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희승이 그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운전대와 종성을 번갈아 바라본다.

희승: 무리하지마.

종성: 예?

희승:아니야...

종성: 형 노래 좀 틀어줘요.

희승: 10분 가는데 뭔 노래야..

종성: 에잇 웰컴투 샌디에고잖아요 신고식이죠 신고식

E. (effect: 효과음) 마지못해 튼 제이지의 노래. 볼륨이 아주 작다.

희승과 종성의 뒷모습. 그들 앞으로 풍경이 휙휙 바뀐다. 신호등에 걸렸다가 코너를 돌았다가.. 대롱대롱 매달린 boulevard 표지판을 몇개 지나친다. 희승이 하품한다. 종성과 희승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단지다. 휴양지 펜션처럼 생겼다. 차체가 언덕에 한번 덜컹한다. 희승과 종성의 몸도 같이 덜컹한다.

E.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소리. 점점 커진다. 출처는 종성의 집임이 분명하다.

종성이 먼저 내린다. 희승이 차 안에서 오른쪽을 돌아본다. 2층 주택에 마당엔 풀장까지.. 사람들이 몇 명 보인다. 백인 여자는 노란색 튜브 위에 널부리져 있고 흑인 남자는 그 옆 선베드에 얼굴을 묻고 엎어져 있다. 누런 햇빛이 그들을 덮고 있다.

종성: (조수석 문을 열며) 형 일단 내려바요. 지금 개러지 안에 차가 너무 많아서...

S#2. 종성의 집

희승이 몸을 구깃대며 내린다. 시체처럼 펼쳐진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간다. 잡다한 것들이 섞인 냄새가 후 풍긴다. 숨을 들이마신다. 집 안에도 사람이 몇명 더 있다. 두명은 샌드위치처럼 겹쳐져 소파에 누워있다. 서로의 발이 서로의 입가

에 가 있다.

종성: V.O (voice over 소리는 들리지만 인물은 보이지 않음) 더러워서 미안요 ~~~

작은 한숨을 쉬고 팔을 어디다 둘지 몰라 갈팡질팡 하는 희승. 이 것저것 들춰보려다 관둔다.

cut to 그날 밤, 여전히 종성의 집, 몰려드는 사람들, 고막이 찢어져라 울려퍼지는 음악,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무언갈 피우고 있다. 연기가 자욱하다.

포도주스를 마시고 있는 희승. (종성 v.o.: 잠 좀 잤어요 형?) 희승이 몽롱하게 끄덕한다. (종성 v.o.: 스테이크 맛볼래요?) 희승이 몽롱하게 고개를 젓는다. 그때 희승의 손을 낚아채는 누군가. 이가 하얗게 빛나는 동양인 남자다. 희승이 놀라 팔을 잡아빼자 씨익 웃으며 몸을 부린다. 희승이 멀찍이 떨어진다.

종성: (영어로) 스테이크 맛볼래?

종성 쪽으로 사라지는 동양인 남자. 곧이어 희승의 눈 앞에는 집계를 들고 정신없이 춤추고 있는 종성과 동양인 남자의 모습이 담긴다. 눈동자를 움직여 거실 소파 쪽을 보니 남자 세 명이서 엉겨붙어 서로를 탐하고 있다. 이번엔 백인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강강댄스 스텝을 뻗는 종성의 모습이 보인다. 종성과 남자는 숨넘어갈 듯 웃는다.

희승: 종성아.

...

희승: 종성아.

...

희승의 목소리는 완전히 가로막혔다. 다시 터덜터덜 2층으로 올라가는 희승. 침대에 모로 눕는다. 종성이 일리웠는지 이 방엔 난장

을 피우는 이가 없다.

cut to 같은 구도, 아침. 햇살이 정신을 깨울만큼 환하다. 희승은 어젯밤과 똑같은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지만 옆에 남자 두명이 추가됐다. 나체로 누워있다. 눈을 뜯은 희승, 낯선 남자의 쪼그라든 불알을 보고 굴러떨어진다.

S#3. 종성의 차 안(1970년식 포드 머스탱, 튜닝된 것, 회색), 오후

희승: 다 네 친구들이야?

종성: (잔뜩 갈라진 목소리) 친구의 친구들 친구의 친구의 애인들 친구의 친구의.. 새로운 친구가 되고 또 친구가 끊어지고 다시 친구되고...

정적. 이따금씩 종성이 짹여 하품하는 소리가 들린다. 깜박이 소리가 들린다.

희승: 너 약하는건 아니지?

종성: (희승 쪽으로 고갤 돌리며) 예~~이. 여기 살면 안하기 힘들어요~

종성이 속도를 늦춘다. 드라이브스루에서 햄버거 포장을 건네받고 희승에게 건넨다. 희승이 손을 젓자 기어 옆에 대충 꽂아넣는 종성. 갑자튀김이 빠져나왔다.

종성: 크.. 66번 국도 개방만적이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거 진짜로 달려본 사람 형이 처음이에요. 그게 시카고에서부터 오는거라면서요? 거기서부터 운전하면 어깨 레알 아작날거같애

희승: ...

S#4. 종성의 집, 풀장, 오후

벤: (어눌한 한국 발음으로) 희승, 들어와!!

희승: 괜찮아, 나는..

벤이 희승에게 물을 튀긴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백인 한명도 덩달아 물을 뿐린다. 손으로 물을 철썩철썩 치자 사방에 물이 튈다. 제 뒷목을 쓸던 희승은 무릎을 굽혀 풀장으로 뛰어든다. 어푸푸 고개를 터는 사람들. 자연스레 샴페인잔을 전네받은 희승이 액체를 한 입에 털어넣는다. 환호하는 사람들. 저 멀리 밀려난 벤이 개구리해 엄을 치며 다가온다.

벤: 어디서 왔어?

희승: 텔러스...

벤: 오, 거기 !#\$!\$#(%\$!*....~!!

곧장 고개를 꺾어 자기 친구들과 영어로 떠드는 벤. 텔러스에서 연상된 이야기를 한다. 활짝 웃어 입가에 주름이 졌다. 연신 얼굴에 묻은 물기를 쓸어내린다.

집에서 튀어나온 종성이 우다다다 풀장으로 뛰어든다. 사상 최대의 해일이 친다. 모두가 야유한다.

벤: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냈어?

종성: 응응

벤: 개오래됐네.

종성: (웃으며) 이 형 수재였어.

벤: (어눌한 발음으로) 오, 진짜?

종성: 형 못하는거 없어. 짱이야. 미쳤어.

쉬지 않고 떠드는 종성의 옆모습을 바라보는 희승. cut to 밤, 여전히 풀장. 희승이 반짝이 튜브 위에 넋을 빼고 누워있다. 가슴이 큰 뺨간 머리의 여자가 희승이 담긴 튜브를 슬슬 밀고 있다. 희승이 풀린 눈을 천천히 깜박인다. 뺨간 머리 여자가 희승의 팔에 입을 맞춘다. 수박을 굴리듯 제 머리를 굴린다. 입술꼬리 끝에서 끝까지. 희승의 팔뚝에 완벽한 입술모양의 립스틱이 찍힌다. 여자는 입술을 묻고 떼지 않는다.

cut to 종성의 방, E. 작아진 음악소리. 종성의 방 벽엔 90년대 랙 밴드 포스터가 그득하다. 원목 침대 위에 올린 매트리스는 훌륭하지만 (못해도 100만원대로 보인다) 그에 비해 이불은 형편없다. 샷파란색 러그가 깔린 바닥엔 팬티 몇벌, 요란한 벨트 몇 개, 청자켓 몇 벌, 어울리지 않는 체크난방 한 벌이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다. 벽에 붙은 선반 위에 놓인 향수들만 열을 맞춰 가지런하다. 여자가 희승의 바지 버클을 다급히 내린다. 희승이 인상을 찌푸린다. 이내 미적지근한 표정이 되는 희승. 몸을 피해 바지 지퍼를 다시 올린다. 머리가 산발이 된 여자를 놔두고 방을 나온다.

E. 다시 커진 음악소리. 1층은 여전히 광란의 파티다. 종성이 흑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머지 한쪽 손으로 반짝반짝 별을 만들며 빙빙 돌고 있다. 소파위로 달려가 쪘프하는 종성. 소파 위를 펄쩍 펄쩍 뛰는 종성. 목에 매달린 목걸이 펜던트도 같이 펄쩍펄쩍 뛴다. 뻘뻘 땀을 흘린다.

S#5. 희승의 차(싼타페) 안, 아침

희승이 팔짱을 낀 채로 잠들어 있다. 차 안엔 희승 혼자밖에 없다. 서서히 눈을 뜨는 희승. 눈꺼풀이 잘 떼지지 않는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아침햇살이 차 안을 비춘다. 옆자리로 손을 더듬어 물이 남은 물병을 집어든다. 몇모금 마시다 급하게 차문을 열고 냅는다. 엎드려서 게워낸다.

insert. 광란의 파티, 축구선수 세레모니 하듯 검지를 핀 한 손을 위로 뻗고 일제히 쿵쿵 뛰는 사람들

S#6. 종성의 차(머스탱) 안, 아침

희승이 창문에 손가락을 칙 문질러본다. 손자국이 남는다. 밖으로 푸드득 날아가는 비둘기 떼가 보인다. 느릿하게 걷는 백발의 노인들이 보인다. 야자수 무더기가 보인다.

희승: 너 오늘은 좀 자야되지 않겠니? 개넨 언제 가냐 대체?

종성: (코 옆을 긁으며) 어... 글쎄요.... 우리 집에서 거의 먹고 자는 애들이라...

희승: 평생 이러고 놀았어?

종성: 평생은 아니죠 한국에서 18년을 살았잖아요. 4년 정도 이렇게 살았죠.

희승: 말장난 하지 말고.

종성: ...넵. 평생 이러고 살았습니다.

희승: 대학은 멀쩡히 다니고 있는거야?

종성: 와 형방금 우리 엄마같았어요.

희승: 아니. 너 감당할 수 있어 이거?

종성: (사이) 무엇을.. 감당해야하죠? 허허허.

insert. 광란의 파티, 핏대를 세우고 무언갈 열창하는 종성. 목 위로 시뻘개진다

S#7. 희승의 차(싼타페) 안, 밤

E. 희미한 음악소리, 촉촉한 소리, 향기는 소리. 운전석에 앉은 희승이 조수석에 앉은 흑인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둘다 눈을 감은 채 무아지경이다. 흑인 남자의 고개가 푹 꺼진다. 희승의 아래에서 머리가 움직인다. 곧이어 희승의 숨이 터져 나온다.

cut to 아침, 여전히 희승의 차. 창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잠든 희승과 한껏 젖혀진 조수석에 누워 잠든 흑인 남자가 있다. E.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어린이들의 소리. 종성의 집 쪽을 보고 소리지르는 아이들. 그에 뭐라뭐라 하는 부모들의 소리. 희승이 번뜩 놀라 몸을 일으킨다. 쌩커풀이 여러겹 졌다. 얼마 간의 정적 후 차문을 달칵 열고 나온다.

S#8. 종성의 집 안, 같은 시작(아침)

천천히 집 안에 들어선 희승. 홀린듯 냉장고 문을 열고 물통을 통째로 들어 벌컥벌컥 마신다. 흔들리는 목울대. 턱을 쓸어 닦고 계단을 오른다. 중간 휘청한다.

종성의 방 문이 반쯤 열려있다. 두 쌍의 다리가 보인다. 고민 없이 문을 여는 희승. 종성과 백인 남자가 한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다. 남자는 대자로 자지와 불알을 다 내놓고 자고 있고 그 옆에서 종성은 모로 누워 자고 있다. 부루퉁하게 나온 입술이 보인다.

희승이 종성을 흔들어깨운다. 종성이 부스스 눈을 뜬다. 희승임을 확인하고도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없다. 이불로 하체를 가리려는 성의조차 없다. 끄응 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 아래로 손을 뻗어 러그를 쓴다. 안경이 손에 잡히자마자 제 얼굴에 꽂아넣는다.

희승: (한숨을 쉬며) 옷 좀 입어..

종성: (반바지에 다리를 한쪽씩 아주 느릿하게 끼워넣는다) 아.. 머리아파..

희승: 종성아.

종성: 형..... 저랑 스벅 갈래요?

종성이 방을 나간다.

S#9. 종성의 집 안→밖, 같은 시각(아침)

종성이 계단을 내려간다. 희승이 뒤따라 내려간다. 종성이 거실을 가로지른다. 희승이 뒤따라 가로지른다. 종성이 절그럭대며 차키를 챙긴다.

마당으로 나온 종성. 풀장 위엔 오리모양 튜브만이 애처롭게 둥둥 떠있다. 늦은 오전의 햇볕이 따갑다. 쪼리를 짹짜이로 신은 종성이 잔디를 턱턱 밟는다. 희승이 뒤통수를 벽벽 긁는 종성을 불러세운다. 멀찍이 서 있는 둘. 1m정도 떨어져있다.

희승: 이거 하나도 안 멋있어.

종성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부루퉁한 입술 그대로다. 뒷목을 벽 벽 문지르며 선 자리에서 말한다.

종성: (멋쩍게 웃으며) 알고 있었잖아요.

희승: 너 남자 좋아하는거?

종성: 네.

희승: 그거 때문에 이러겠냐?

아후. 복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연초를 피워무는 희승.

종성: 그럼 왜요?

희승: 넌 이 꼴이 정상이라 생각해? 니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앞일 걱정 없는 애라지만 야 선이라는게 있지. 니 집에 멸냄새 작렬해. 온사방이 약냄새야. 근데 아무도 여길 안건드려. 뭔데 이거?

종성: 형 대마는 약도 아니에요.. 왜그래요? 형도 꽤 오래 살았잖아요 미국. 그리고 우리 존나젊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희승: 너 이런 애 아니잖아.. 너는

종성: (말을 가로막으며) 형. 형형형

종성의 눈이 충혈되어있다. 곧 울 것 같다.

종성: 형. 옛날에도 그랬지만 좋으면 남아있고, 싫으면 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한거잖아요. (목이 메인다) 안그래요?

희승: ...

종성: (웃으며) 단순한거잖아요..

희승:

종성: 언제라도 갈 것처럼 차안에만 있는거 그때도 그랬고 형은 맨날. 맨날. 자진 간다는듯이. 맨!!날.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진 않는다. 아주 오랫동안 정적이 이어진다. 먼저 몸을 돌린 것은 종성이다. 쌈타페가 아닌 머스탱으로 향한다.

앞선 이야기:

샌디에고에 사는 영리치게이소년 종군과 댈러스에서 올라온 희군,
n년만에 재회하다!

희군이 본 종군은 여전한듯 어딘가 낯설다. 약과 파티와 남색(!)에
거리낌이 없다.....!

미곡초등학교를 거쳐 미곡중학교 그리고 미곡남자고등학교에서 본
종군은 분명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한소리했더니 울먹거리기까지! 적잖이 당황한 희군!

뭣때문인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빠진 종성이 는 게비싼 개조마스
탱을 몰고 쟁 가버렸당. 희군이 이를 뒤따라간다..

(그나저나 희군은 그 먼길을 어떻게 운전했을까..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66번국도를 타고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운전하자면 몇 천키로가 넘는다. 오클라호마에서 시작해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샌디에고는 미국서부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에 있는 곳(아마도)이고 댈러스는 미국남부 텍사스 도시다)

- 저런걸로 구름빵 만들면 맛있어요.

18살의 희승이 옆을 돌아봤을 때 17살의 종성이 한 말. 체육관 강당에 퍼질러 누워있었다. 깁스를 한 다리를 나머지 한 쪽에 척 올리곤 말이다. 희승은 배드민턴채를 정리해서 창고에 넣고 있었고.. '그리고 있으면 뼈가 영원히 안붙지 않을까? 종성아?'나 고작 대답으로 덧붙였겠지.

종성이 본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단 한덩이의 구름이었다. 렌즈세 척액을 끼얹은듯 하늘이 맑았다. 망막에 맺히는 상이 지나치게 선명해서 어딘가 비정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밀도가 상당해 보이는 그 구름은 희승이 창고정리와 강당청소를 마칠동안 종성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커다랗고 무거워보이는 몽실구름은 그 날 진짜존나느릿하게 학교 위를 누볐다. 희승이 먼저 묻은 손을 털고 -집에가자, 고 할때까지 그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종성인 자전거를 도둑맞았다. 자전거보관소에 희승의 자전거만 덜렁 있었다. -으아악! 내자전거!!!! XXXX만원짜리.. 망국의 절망한 왕자처럼 두무릎을 털썩 꽂던 종성이. 뭐 택시타고 갔으면 됐을텐데 기어코 희승의 자전거 뒷자리에 올라타던 종성이. 이유야 당연히 있었다. 희승에게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

- 노래방 갔다 갈래요 형?

아주 귀엽고 은밀한 제안. 우물쭈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 불러~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희승의 대답.

- 형, 집에 가려고요?

1년 후 종성의 또다른 물음,

- 어? 아니~. 놀아~

그리고 희승의 답. 몰래 아빠 차를 끌고 나온 열아홉의 희승은 그 때도 차 안에 있었다. 주먹으로 말아쥔 전자담배를 폭폭 뿐으면서. 종성의 송별파티였나 그랬을거다. 강남이었는지 청담이었는진 기억이 안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종성은 준법 정신 철저한 한국의 미성년자였다. 시끌벅적 송별회였지만 누구 하나 취하지 않았고 테이블 위엔 치킨과 피자였으며 입가심으로 담배 대신 사이다와 콜라를 마셨다. 희승만 빼고.. 희승은 중학생때부터 꼴초였다..

- ...

- ...

- ...

- 아니 솔직히 니 친구들 너무 시끄러워.

차 밖에서 자길 멍청히 내려다보는 종성이가 느껴졌다. 그런 종성 일 한번 쳐다보곤 창문을 딸깍 딸깍 올렸다. 담배냄새 나니까 절로 가라고 했던가. - 그래도 오늘은 나와봐야죠 형 너무하네요 ~~~~~ 한 뼘 좁아진 빈틈으로 종성의 볼멘소리가 쏟아져들어왔다. 그 목소리에선 희승도 느낄만큼 서운함이 똑똑 묻어나와서, 멋쩍게 웃고 운전석 문을 열었던 기억이 난다.

- 이것만 마저 피고 들어갈게.

그로부터 몇 주 후 종성은 미국으로 영영 떠났다. 가끔 후배들을 통해 근황을 전해들었을 뿐이었다.

S#10. 희승의 산타페

희승이 종성이 모는 위태로운 머스탱을 뒤따라 간다. 하지만 속도를 따라잡기 역부족이다...

S#11. 건널목

종성의 머스탱은 여전히 정신을 잃은듯 휘청거린다. 저마다 경찰이 잡아갈것 같다. 결국 클락슨을 빵 울리는 희승.

희승: 왜저렇게 흥분했어 재...

S#12. 라 호야 비치(La Jolla Beach)

미끄러지듯 비탈길을 내려가는 종성의 차. 곳곳에 박힌 작은 바위와 자갈에 차체가 덜컹거린다. 한편 비탈길 직전 브레이크를 끼익밟는 희승. 황급히 문을 열고 내린다. 탈탈 뛰어간다.

희승: 박종성!

종성: ...

희승: 야!!!

종성: ...

종성이 꾹 쓰러진다. 희승이 놀라 달려간다.

희승: 종성아?!!!

종성:

희승: 너 설마 쪽팔려서 이러는거면.....

희승이 종성을 흔든다. 몸을 기울여 숨소리를 듣는다. 점점 거칠어지는 종성의 숨소리. 고개를 끼고 종성을 내려다보니 콧구멍을 벌렁대며 울고 있다. 눈과 코가 빨갛다. 히끅대며 울음을 먹는다. 이렇게 우는 것은 처음 본다. 대자로 누워 왼쪽 팔로 눈을 가린 종성. 파드득 떨리는 입술이 보인다. 곧이어 몸을 말아 희승을 등지고 누워버리는데. 그렇게 한참을 들썩이며 운다.

우는 모습을 내려다보다 옆에 같이 앓는 희승. 무릎을 세워 앓았다. 두 손바닥으로 모래바닥을 짚는다. 아침햇살에 눈쌀을 찌푸린다. 파도가 한 10번 철썩였을때 몸을 일으켜 화면 밖으로 나가는 희승. 몇 분 뒤 아메리카노를 양 손에 들고 돌아온다. 종성은 아직 까지 요지부동이다.

희승: 옆에 놔둘테니까 마셔.

종성:

희승: 삐쩍 꿀았어 애가...

종성:

종성의 얇은 몸을 감싼 더 얇은 티셔츠(갈색이고, 어찌나 얇은지 작은 바람에도 돌돌 말려올라간다) 그 밑의 얇은 반바지 그 밑의 가느다란 다리 그 끝의 실처럼 얇은 쪼리가 보인다. 죄다 얇고 말랐다.

그렇게 몇십분이 더 지난다. 희승의 아메리카노는 바닥을 보인다. 종성의 몸 주위 모래를 잡히는 돌멩이로 주욱 그어보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종성의 등 뒤에만 종성의 몸을 감싼 테두리가 그어졌다. (종성의 목부터 등까지 이어진 목뼈와 척추뼈는 작은 트리케라톱스를 연상케 한다. 삐쩍 꿀은 낙타가 안에 들어있는 것만 같다. 가죽이 삐에 달라붙었다.)

S#13. 희승의 산타페

다시 자차에 올라탄 희승. 핸드폰 스크롤 몇번 올리니 비탈길을 터덜터덜 걸어올라오는 종성이 보인다. 꼴이 말이 아니다. 번쩍번쩍 머스탱에 다시 올라타는 종성. 시동을 걸자 희승도 뒤따라 시동을 건다. 종성이 출발하자 희승도 출발한다.

종성이 꼴이 말이 아니라곤 했지만 희승이 꼴도 그닥 말이 되지는 않음.. (다크서클이 명처럼 번졌다)

S#14. 희승의 산타페, 밤

몇번 부볐던(?) 그 흑인 남자애와 또한번 차안에서 밀회(?)를 갖는 희승.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 그 남자엔 희승이 맘에 든 모양. 이날 밤엔 러쉬라고, 희승에게 좋은걸 알려주는데.. 트로이시반 신곡 제목이라 희승도 이게 뭐하는 물건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다.

S#15. 며칠 후, 종성의 집, 밤

여전히 종성의 집엔 매일 밤 새로운 사람들과 익숙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다. 매일밤 음악이 등등 울린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종성이가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방이 있는 2층에서만 귀신처럼 돌아다닌다.

희승은 한 손에 샴페인잔을 들고 종성의 방을 훔긋 보는데, (이미 정신은 몽롱한 상태다) 다른 사람은 안보이고 종성이만 보인다. 정확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종성의 목과 머리만 보인다. 목벗근이 팽팽하게 서있고 핏줄이 울룩불룩 튀어나왔다. 탁한 조명에도 종성의 머리통이 달아오를듯 빨개진건 알 수 있다. 종성의 악문이 가 보인다. 씨푸리는 미간이 보인다. 희승은 고개를 돌린다.

S#16. 종성의 집, 밤→새벽

상반신만 탈의한 종성이 침대에 정자세로 누워있다. 거기 걸터앉은 희승이 보인다. 희승이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입을 뗀다.

희승: 나 내일 가.

종성: (느릿하게) 내일이요? ...오늘 말하는거예요? 지금 12시 넘었을텐데...

희승: (시계를 보고) 어.. 내일. 오늘은 여기서 좀 철게. 그래도 되지?

종성: 그럼요. 쉬세요.. 안될 거 뭐 있어요.

희승도 눕는다. 종성과 수직으로 누운 모양이 됐다. 희승의 허리에 종성의 발끝이 닿을락말락한다. 종성이한테서 술냄새가 난다. 나한테서도 나겠지..

희승: 종성아 나 할말이 있는데.

종성: ..뭔데요?

희승: 서운했던거 진심이야?

희승은 '아니죠ㅋㅋ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또는 '에이~ 고딩땐데요~' 따위의 반응이 나올줄 알았다. 하지만 종성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한

종성: 네.?? 네!!

희승:

종성: 예?? 그럼 제가 괜히 미친새끼처럼 울고불고 짬겠어요 형?

희승: 아... 어.....

종성: 아 또 서운해질라그래..... 씨 막 고딩때 생각나서 미(뻑사리) 치겠네.

희승: 미안하다.. 그땐 좀 철이 없잖아..

종성: 더 상천건 뭐냐면, 형도 남자 좋아하면서 날 그렇게 봤다는 거야. 와, 진짜. 상처 레전드.

순간 희승의 얼굴이 긁힌것처럼 불탄다. 후끈후끈.

희승: 뭔소리야아 누가그래애~!

종성: ...아니에요?..

희승:하.

종성: 맞구나...

희승: 하..... 씨발..

종성: 아~~~~~몰라. 형. 미안한데 나가주면 안돼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시도때도 없이 삑사리가 난다) 저 또 울 것 같아요. 울면 개쪽팔리고, 기분 개똥같고, 그럼 또 파티 촛같이 열어야되고,

희승이 종성 쪽으로 기어올라온다. 손에 들린 무언가를 종성에게 먹인다. 눈이 풀려있다. 이건 종성도 마찬가지다. 종성은 희승에게 이거 어디서 났냐 묻고 아까전에도 먹었는데 나 ... 라고 덧붙인다. 둘은 옥신각신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침대 옆으로 같이 굴러떨어진다. 몇 분 뒤 종성의 달뜬 숨소리가 터져나오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cut to 아침!

희승이 도착한 날과 별다를 거 없는 아침 풍경. 2층에서 내려다본 풀장엔 튜브 몇개 사람 몇 명. 잔디밭엔 신발 몇 챌레 또 사람 몇 명. 희승은 계획을 세웠다. 일단 이 집에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사람들을 다 치울 것이다. 개러지에 빈틈없이 주차된 차들도 다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존나 한국식으로 신발은 다 신발장에 넣고 러그도 세탁기에 쑤셔넣어 세탁 몇바퀴 돌릴 것이다. 청소기 열라 돌리고 광이나게 바닥을 닦을 것이다. 빈 술병 약병은 다 창고에 박아넣고 냉장고는 물과 이온음료로 채울 것이다. 그 후 침대 위에 빨래처럼 널려있는 종성을 들쳐업고 자신의 산타페에 태울 것이다. 그다음엔 앨에이로 밟든지 샌프란시스코로 밟든지. 일단 여기가 아닌 곳에서 밟은 정신으로 종성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봐야겠다.